



베푸는 불교 쌓이는 불심

경기 동두천·의정부·포천

동두천 동두천 불교가 이렇게 달라 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역민들도 “동두천 불교가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며 의아해할 정도로, 동두천 스님들조차도 스스로 놀라고 있다. 10년 만에 동두천 불교가 살아 난 것이다. 도대체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동두천사암연합회는 올해 봉축행사를 동두천 불교 사상 가장 성대하게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암연합회 소속 33개 사찰이 ‘한 번 해보자’며 의기 투합했고,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동두천의 사찰은 모두 40여 개. 이 가운데 33개 사찰이 사암연합회 활동을 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분위기는 포교 경력이 풍부한 법해 스님이 지난해 12월 동두천의 대표사찰인 자재암의 주지로 부임해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동두천의 스님들이 법해 스님을 중심으로 동두천 불교를 일으켜 보자고 결의했고 유명무실했던 사암연합회를 재건했다. 그리고 지역 사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동두천 불교가 달라진 이유는 또 있다. 군부대가 밀집한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각 사찰들이 군 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보문사 주지 정오 스님과 용화 스님이 시정불자회인 삼보회의 신행을

도우면서 재가불자 신행활성화에도 적극 나섰다. 또 자재암이 위치한 소요산 국민관광지가 개발되고 내년까지 동두천에 전철이 개통될 경우 오히려 포교여건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두천 군포교에 역점...사찰 대부분 사암련 활동

의정부 어린이 포교 적극적...사찰간 화합이 과제

포천 군부대 후원·장학회·노인복지 사업 전개

의정부 의정부 불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어느 지역보다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어린이 포교도 비교적 활발하다.

이 지역 15명의 비구니 스님 모임인 ‘자비회’는 시내에 위치한 ‘자비회관’에서 매주 마다 법회를 갖고 있으며, 자비장학회 운영을 통해 불자들의 신행을 돕고 불교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 자비회, 의정부포교원, 석림사, 봉화정사는 유

치원을, 회룡사는 어린이 합창단과 어린이 법회 운영을 통해 어린이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의정부 불교는 상당히 침체돼 있다. 회룡사, 의정부포교원 등 5-6개 사찰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사암연합회의 와해 때문이다.

2년 전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로 사찰들이 찬성쪽과 반대쪽으로 나뉘면서 대립했고 결국 상호간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사암연합회는 유명무실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사찰들은 희망을 버리



동두천 자재암 주지로 지난 5월 열린 ‘동두천 경로잔치’. 지역 사찰로서는 처음으로 경로잔치를 연 이날 2500여명의 어르신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자재암은 매년 경로잔치를 여는 등 지역민들에 다가가는 포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포천 지난 10여 년 간 어느 정도 성장세를 이뤄왔지만 서로의 힘을 결집시키지는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포천의 스님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만큼 포천 불교를 바꿔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자비사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펼치며 대안사 구암사 성불암은 불우이웃 및 군부대 후원 사업을, 보문정사는 어린이 포교를, 왕산사는 노인복지 사업을 전개하면서 ‘발기만 하는 불교’가 아닌 ‘베푸는 불교’를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암연합회가 정기적으로 군부대를 방문하고 소년소녀가장들,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 돕기 탁발에 나서는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불교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이렇게 포천불교가 자리를 잡아가자 최근 들어 포천 스님들은 불교회관을 짓고 불교대학을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포교에 나서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 두 종단의 사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여타 지역과 달리 15개 종단 사찰이 고루 분포돼 있어 화합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포천 불교를 위한 마음은 하나라는 것도 포천 불교의 발전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인구 17만명에 사찰 수는 100여 개. 인구에 비해 사찰이 다소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인구가 계속해 늘고 있고, 공장이 계속 들어서면서 지역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데다,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볼 때 포천 불교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포천의 스님들은 말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포천불교 활성화의 주역

혜승 스님 (포천 보문정사 주지·포천경찰서 경승실장)

혜승 스님은 두 차례 사암연합회장을 맡아 포천불교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며 인재 불사에 주력하고 있다. 포천경찰서 경승실장으로 9명의 경승을 이끌며 경찰포교에도 매진중이다. 삼문종 창종 멤버로 삼문종 총무원장과 종회의장을 지냈으며, 매주 포천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나눔, 불교 대중화의 지름길”

승법 스님 (포천 향적사 주지)

승법 스님은 나누는 것이 불교 대중화의 지름길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수시로 돕고 있고, 인근 농가시설에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불우한 아이들도 7명이나 키웠다. 사암연합회 사무총장으로서는 사암련 차원의 복지시설 및 군부대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소외이웃 찾아 ‘주고 또 주고’

정오 스님 (동두천 보문사 주지)

3년간 동두천 노인대학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했고, 수시로 여주교도소를 다니며 재소자들을 보살피는가 하면, 지역민들을 위해 1천만원이 넘는 사비를 들여 약수터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정오 스님을 주변에서는 욕심없고 순수한 ‘촌사람’이라고 말한다. 30년 넘게 은사스님과 함께 살고 있는 스님의 꿈은 무료 양로원을 지어 불우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다.



어린이법회·합창단 운영

성전 스님 (의정부 회룡사 주지)

성전 스님은 지난해 입적한 은사 혜승 스님의 뜻을 이어 회룡사를 의정부 제1의 수행·포교도량으로 가꾸는데 여념이 없다. 어린이 포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고 어린이 법회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자비회 산하의 (사)자비장학회 이사과 광동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사찰, 지역주민 쉼터로

석봉 스님 (포천 흥통사 주지)

백운계곡이라는 관광지에 위치한 절의 특성을 살려 흥통사를 포천시민의 쉼터이자 관광사찰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포천시 및 광동학원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석봉 스님은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의 상좌로 일본 대정대학교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의정부 송산노인복지회관 관장도 맡고 있다.

지역포교 변화 바람 일으켜

법해 스님 (동두천 자재암 주지·동두천사암연합회장)

법해 스님은 지난해 12월 자재암 주지로 부임, 6개월 만에 동두천 불교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동두천 시차원의 경로잔치를 개최했는가 하면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합창단을 창단했으며, 초·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스님은 지역주민들이 편안히 기도하고 쉴 수 있는 수련원을 건립하겠다는 발원을 갖고 있다.



정법의 기초 신도교육 역점

관적 스님 (포천 선광사 주지)

올바른 교육만이 정법을 펼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소신으로 신도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관적 스님은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을 은사로 출가, 통도사 해인사 법주사 선원, 해인사 율원 등지에서 공부했다.



95년 선광사를 창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소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무료유치원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편안하고 친근한 사찰로”

지순 스님 (포천 만덕사 주지)

지순 스님은, 입적한 전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이 가장 아꼈다는 손상좌, 태고종 대종사 혜승 스님과 함께 20년 전 포천에 와서 만덕사를 일궜다. 만덕사를 깨달음의 동산으로 가꾸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만덕사 인근의 야외법당을 장엄하게 꾸며서 누구나 편안하게 쉬면서 친근하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역 활성화 위해 동분서주

혜성 스님 (동두천 덕수사 주지)

혜성 스님은 동두천사암련 총무를 맡아 회장인 법해 스님과 함께 동두천 불교 활성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 태고학회 이사, 28사단 지도법사 등을 맡고 있다.



평상시 신도들에게 인육바리밀을 강조하는 혜성 스님은 염불원과 선원을 건립해 실력있는 후학을 키워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경기북부 유일 천태종 사찰

탄성 스님 (천태종 의정부포교당 주지)

올 1월부터 경기북부의 유일한 천태종 사찰인 의정부포교당 주지를 맡아 천태종 저변확대와 불교포교의 중책을 맡게 된 30대의 젊은 스님. 내년부터 사암연합회에 가입해 지역 사찰들과 함께 하며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탄성 스님은 의정부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 군부대와 함께 전통장병을 위한 천도재를 준비중이다.



맑고 향기로운 세상 자연식의 집

자연식 식이요법 암(癌) 성인병전문요양원 - 음식물과 생활을 바꾸지 않는 限 근원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달성 가장 우미산 황새골에 위치한 자연식의 집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공기 우미산과 삼성산 사이에서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 따스한 햇볕 다양한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어 숲속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산림자연 쉼터이며, 요양원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원은 자연치료원리에 의한 자연 식이요법과 원장님의 30가지 처방에 따라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성인병 및 질환에 일체의 약물 조미료를 쓰지 않고 생활환경과 습관을 개선하여 인체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키고 면역기능을 향상하며 조직의 향상성을 높여 질병의 증상을 예방하고 자연치유력에 의하여 병이 스스로 고쳐지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나무약사어래불 나무약사어래불 나무약사어래불

맑고 향기로운 세상 전화 053)767-0036

